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 은 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상담학과

정 윤 경¹⁾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342명(남자 172명, 여자 17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검증, Cronbach의 α 계수,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둘째,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높은 관련성이 나타났다. 의도적 통제와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공감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공감이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검증함으로써 의도적 통제와 공감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할 수 있다는 간접 발달 경로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 의도적 통제가 타인 지향적 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 매개모형검증

* 이 논문은 2014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benijeong@catholic.ac.kr)

I. 서론

아동이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적 맥락 내에서 조화롭게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친사회적 행동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모든 행동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전제조건이 된다(서소정, 2006; Eisenberg, 1983). 가령 떨어진 친구의 물건을 주워주고, 친구와 협력해서 모든 활동을 하고, 학용품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이끌어 나가게 하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적응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친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아동은 또래에게 인기가 많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았다(김윤경, 이옥경, 2001; 노미나, 2009; 이은영, 2003; Moore & Eisenberg, 1984). 실제로 Greener(1999)의 연구에서도 또래에게 인기 있는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유의하게 높았고 또래에게 배척을 당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낮음을 밝혔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이 아동의 또래관계,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과 같은 심리 사회적 적응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관계 맺는 사회적 범위는 가족에서 또래로 확장된다. 특히 아동기는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성차, 연령, 공감 등 개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Lennon, Eisenberg, & Carroll, 1983; Underwood & Moore,

1982; White, 1972). 그 중에서도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주요변인 중의 하나로 강력히 지지되어 왔다(김미라, 2009). 공감이란 타인의 정서와 생각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서로 반응하는 능력으로 최근에는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모두 포함된 다차원적 요소로서 정의된다(차화정, 2011; Davis, 1980; Deutsh & Madle, 1975; Iannotti, 1978). 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친사회적 행동과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다(유연경, 2013; 조한익, 이미화, 2010; Barnett, Howard, Melton, & Dino, 1982; Batson, Ahmad, Lishner, & Tsang, 2002; Buckley, Siegel, & Ness, 1979).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도움주기, 나누기, 위안하기, 협동하기가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영희, 2011).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또래영향보다 개인특성인 공감능력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김학령, 김정화, 정익중, 2011).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동과 청소년 모두 공감능력 점수가 높았을 때 친사회적 행동의 점수가 높았다(이경주, 2002). 즉 친사회적 행동을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을 잘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공감은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파악하는 조망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동기를 불러일으켜 친사회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Eisenberg, Fabes, 1990; Eisenberg, Miller, 1987). 또한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공격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높은 사회적 자신감,

좋은 친구관계의 질, 융통성과도 관련이 있다 (하은혜, 조유진, 2007; Clark & Ladd, 2000; Downs & Jenkins, 1993; Feshbach, 1964; Saarni, 1990). 결국 정서가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내적 동기의 핵심이라는 점에 근거해봤을 때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공감은 도움행동을 이끌어내는 내적 기제로 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박성희, 1997; Eisenberg & Mussen, 1989).

한편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은 이미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에 따라서는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이 특성상 여아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고 보고한다(김미라, 2009; 서소영, 2009; 이경주, 2002; 유연경, 유미숙, 2012; 조강모, 2011; Auyeung et al., 2009; Bryant, 1982; Eisenberg & Lennon, 1993).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등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양진숙, 1991; 조효진, 손난희, 2006). Zarabatany, Hartmann, Gelfand와 Vinciguerra(1985)는 어린 아동 돌보기, 상처 치료하기와 같은 여아의 특성을 더 많이 측정한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의 득점이 높았다. 반면 타이어 교환하는 것 돕기와 같은 기술적인 구조 행동이나 기사도적 행동이 포함된 친사회적 행동의 측정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돕기를 더 잘 했다. 박성희(1994)의 연구에서는 공감의 내용이 정서적 감염이나 개인적 고통일 때는 남녀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기보고식이나 타인이 보고하는 연구에서는 대체로 성차가 나타났으나 안면 표정이

나 생리적 반응에 의한 측정일 때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여성 혹은 남성에게 친숙한 어떤 행동을 측정하느냐와 같은 측정내용에 따라 또는 측정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이 성차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아동의 발달과 건강한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으로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에 주목하고 있다. 의도적 통제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실행 주의력의 효율성(executive attention)이다. 하위유형으로는 주의 조절(attention regulation), 억제 조절(inhibitory control), 활성화 조절(activational control)로 구성된다(Posner & Rothbart, 2000; Rothbart & Bates, 2006). 주의 조절은 계획적으로 주의를 옮기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억제조절은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활성화 조절은 사회적 규범에 맞는 대안적인 행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들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의도적 통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이유는 의도적 통제가 기질의 한 요소로서 자기조절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기질은 외부 자극에 자동적, 즉각적으로 일관되게 반응하는 반응성 측면으로만 정의되었다. 그러나 Rothbart는 기질의 또 다른 측면 즉 그러한 반응성을 의도적,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절과정인 의도적 통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Eisenberg & Spinrad, 2004). 무엇보다 연구자들은 의도적 통제가 자기조절력의 기초가 되어 개인의 각 발달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도적 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 및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의도적 통제가 높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고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유능감, 협동심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배운진, 임지영, 2012; Eisenberg, Pidada, & Liew, 2001; Spinrad et al., 2007). 이는 아동이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를 조절하여 사회적 맥락과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Eisenberg 등(1997)에 따르면 부모와 교사가 보고한 초등학교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또래가 평가한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령 전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또래가 평가한 친절함, 나누기, 돕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Cumberland-Li, Eisenberg, & Reiser, 2004). 또한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줄 아는 아동은 덜 공격적이고, 타인의 정서를 잘 파악해서 위로할 수 있었다(김지현, 2010; 문영경, 2010). 이처럼 자기조절을 잘 하는 아동은 또래관계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스스로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낮고 또래관계에서 더욱 친사회적이게 된다(이지희, 문혁준, 2008; Caspi & Moffitt, 1993). 또한 개인의 의도적 통제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주의를 전환시켜 중립적인 생각과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고 부정적 정서를 차단

한다(Rothbart, Ahadi, Hershey, 1994). 이에 대해 Simonds, Kieras, Rueda, Rothbart(2007)은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의도적 통제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의도적 통제가 중요한 개인 변인으로 작용함을 예측해볼 수 있다. 반면 자기조절력이 낮은 아동은 타인에 대한 사려성이 결여되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Goodman, Brogan, Lynch, & Fielding, 1993). 즉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은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의도적 통제는 정서적 발달과도 관련된다. 이미 국외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와 감정입 및 공감 간의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다(Eisenberg et al., 2007; Valiente et al., 2004).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실험자는 난로 불에 화상을 입은 여아의 얼굴을 보고 친구들이 놀리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이 슬픔을 더 많이 보고하였고 의도적 통제수준이 낮은 아동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의 괴로움에 빠져서 불안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였다(Eisenberg et al., 2007). 타인을 공감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과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관찰자가 정서적으로 대상과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는 것도 필요하다(Feshbach & Feshbach, 1982). 왜냐하면 대상과 혼합된 강력한 정서반응은 인지적 통제를 넘어서게 되면 충동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행동이 어려워진다(신경일, 1994). 결국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개인적 고통을 많이 경험할수록 타인 지향적 동정보다 자기 지향적인 염려나 근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므로(박성희, 2004) 의도적으로 주의를 타인에게 돌리고 자기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외연구에서 4.5~8세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공감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의도적 통제는 공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공감의 하위유형 중 개인적 고통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은 개인적 고통수준이 높았다(Valiente et al., 2004).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도적 통제를 잘하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동정심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이에 대해 Valiente 등(2004)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은 타인의 필요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덜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감을 잘 한다고 증명하였다. 배운진(2012)은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은 개인적 고통에만 집중하느라 감정이입이 어렵고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은 타인의 괴로운 상황을 보고 자기 정서를 억제하고 타인의 정서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이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isenberg 등(2007)도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정서에 대한 타인 지향적 반응을 더 잘하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높다고 밝혔다. 즉 의도적 통제는 높은 수준의 각성된 정서를 억제하고 타인에게 주의를 돌리도록 도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타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더 많이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지한다. 의도적 통제 연구동향을 살펴본 최근 자료에 의하면 주로 의도적 통제와 발달 영역과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사회·정서영역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배운진, 임지영, 2011). 이는 그만큼 자기조절의 기초가 되는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행동적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한편 의도적 통제는 실행주의력(executive attention)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만 3세 전 후부터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하여 아동 중기 이후가 되면 자발적인 주의 전환과 억제적 통제나 활성화적 통제와 같은 의도적인 조절능력이 가능해지고 아동후기와 청소년기에는 성격적인 특성으로 안정화 되는 특징을 지닌다(Eisenberg & Spinrad, 2004).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 근거해본다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내적 변인으로 공감과 의도적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미 국외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와 공감 간의 정적 상관을 증명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두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공감변인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의 남녀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차는 이제까지 많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결과는 비일관적이다. 세 변

인이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고려해봤을 때 아동발달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남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장혜인, 2010).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공감을 매개로 하여 그 영향의 경로를 확인하여 의도적 통제의 발달을 이해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4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172명, 50.3%)과 여학생(170명, 49.7%)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5학년이 166명, 6학년이 176명이었고, 평균연령은 12.5세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후기는 타인에 대한 지각과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시기이고 둘째, 아동 중기 이후는 좀 더 자발적이고 유연한 주의조절이 가능하고 억제적 통제나 활성화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Eisenberg & Spinrad, 2004).

2. 측정도구

의도적 통제(EATQ-R)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Capaldi와 Rothbart(1992)가 초등학교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청소년용 기질 척도(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 EATQ)의 수정판인 청소년용 기질 척도 개정판(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 Revised, Ellis & Rothbart, 2001)의 하위척도 중 의도적 통제 척도를 장희순(2013)이 번안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EATQ-R은 10~16세의 청소년의 기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EATQ-R의 전체 척도 중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하위 요인 척도만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EATQ-R 척도 중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3개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주의(attention) 척도 3문항, 억제적 통제(inhibitory control) 6문항, 활성화적 통제(activation control) 4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채점 된다. 총점은 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79이다.

공감(EQ-C)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Auyeung 등(2009)의 아동용 공감지수 척도(EQ-C)를 차화정, 김혜리, 이수미, 엄진섭과 이승복(2011)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 타당도, 요인분석을 마친 자기보고형 한국어판 아동용 공감지수(EQ-C)를 사용하였다. EQ-C 척도는 총 27개의 문항

으로 이후 2, 7, 8, 10번 문항이 요인분석에서 .3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지 않았고, 17번 문항은 두 요인에 동일한 정도의 요인 부하량을 보여 실험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문항을 제외한 총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Auyeung 등 (2009)의 방식에 따라 순문항의 경우 ‘매우 동의한다’ 2점, ‘약간 동의한다’ 1점,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0점으로 채점 하였으며, 역문항은 반대로 채점하였다. EQ-C 척도의 총점은 44점이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4이다.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Eisenberg의 이타성 자기보고를 양진숙(1991)이 번안, 수정,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거친 도구를 배지은 (2008)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게 수정 보완한 아동용 친사회적 행동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1=전혀 아니다, 4=확실히 그렇다).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총점은 80점이며 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5이다.

3. 연구절차

서울과 경기 소재의 초등학교 4곳을 임의 선정하여 2014년 3월 10일부터 3월 28일에 걸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각 반 담임교사에게 조사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 13문항, 공감 22문항, 친사회적 행동

20문항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설문 소요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400부가 배포되었고 응답이 누락되거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58부를 제외한 342명의 자료를 결과 분석에 포함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아동의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각 문항간의 신뢰도를 Cronbach's α 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셋째, 아동의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공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와 추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구성개념 간 관계성에 기반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프로그램(AMOS 18.0)을 활용하였다. 이 때 가설적 연구모형의 수용기준으로 모형적합도 판정을 하고 경쟁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해 모형 간 적합도 비교를 실시하였다. 채택된 검증모형에 포함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경로들을 동시에 고려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매개효과의 안정성을 판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통한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95% 신뢰구간

내에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매개효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정한다.

III.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각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도적 통제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t_{340} = -1.86, p > .05$), 공감의 경우 남자($M = 24.01$)에 비해 여자($M = 28.99$)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_{340} = -5.73, p < .001$).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도 여자($M = 63.21$)가 남자($M = 58.97$)에 비해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었다($t_{340} = -4.85, p < .001$).

2. 아동의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의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3, 4와 같다. 먼저 연구대상 전체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의도적 통제는 공감 및 친사회적 행동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각각 $r = .39, p < .001$; $r = .36, p < .001$), 다음으로 공감 역시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r = .69, p < .001$).

남녀집단을 나누어 각 변인 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남녀는 유사한 상관패턴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아의 경우, 의도적 통제는 공감 및 친사회적 행동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각각 $r = .41, p < .001$; $r = .29, p < .001$), 공감 또한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64, p < .001$). 여아의 경우에도 의도적 통제는 공감 및 친사회적 행동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각각 $r = .35, p < .001$; $r = .41, p < .001$), 공감 또한 친사회

표 1. 성별에 따른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성별		N	M	SD	t
의도적통제	남	172	44.05	8.09	-1.86
	여	170	45.74	8.73	
공감	남	172	24.01	7.88	-5.73***
	여	170	28.99	8.20	
친사회적 행동	남	172	58.97	8.09	-4.85***
	여	170	63.21	8.08	

*** $p < .001$.

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69, p < .001$).

표 2.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 변인 간 상관계수

	1	2	3
1. 의도적 통제	1		
2. 공감	.39***	1	
3. 친사회적 행동	.36***	.69**	1

** $p < .01$. *** $p < .001$.

표 3. 남자집단의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1	2	3
1. 의도적 통제	1		
2. 공감	.41***	1	
3. 친사회적 행동	.29**	.64***	1

** $p < .01$. *** $p < .001$.

표 4. 여자집단의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1	2	3
1. 의도적 통제	1		
2. 공감	.35***	1	
3. 친사회적 행동	.41***	.69***	1

*** $p < .001$.

표 5. 검증모형의 추정 적합도와 적합도 비교 결과

	모형	χ^2	df	CFI	TLI	RMSEA
1	가설모형: 완전매개모형	140.81***	33	.915	.884	.098
2	경쟁모형: 부분매개모형	140.70***	32	.914	.879	.100

주. 모형1-모형2: $\Delta\chi^2 = .02$, $\Delta df = 1$, $p = .877$.

*** $p < .001$.

3.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먼저 의도적 통제가 공감을 예측하는 과정과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만을 포함한 완전매개모형을 가설적 검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의도적 통제가 공감을 거치지 않고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직접경로를 추가적으로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의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두 경쟁모형이 모형 적합도 추정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완전매개모형이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가 다소 우수하면서 또한 RMSEA의 최소 기준($< .1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전매개모형 대비 부분매개모형 설정 시 자유도 손실 대비($\Delta df = 1$) 간명성의 개선정도($\Delta\chi^2 = .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 = .877$) 최종적으로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된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완전매개모형 내 각 구성개념 간의 개별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1, 2와 같다. 먼저 의도적 통제가 공감을 예측하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 = .51, p < .001$), 공감은 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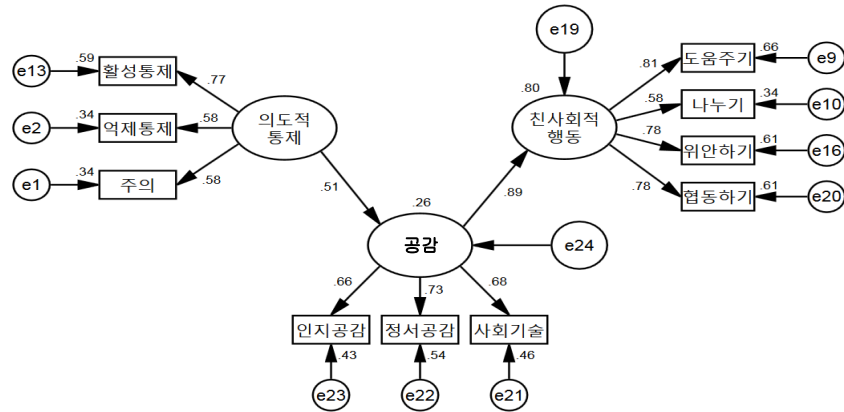


그림 1. 가설모형: 공감의 완전매개(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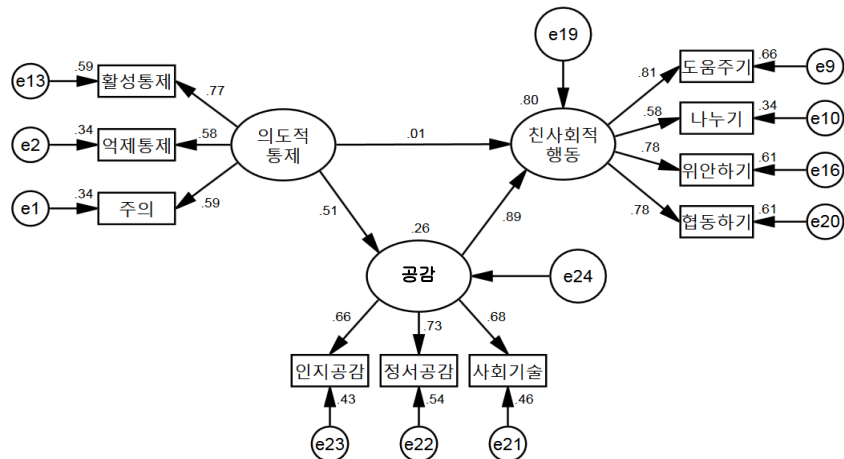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공감의 부분매개

적 행동을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89, p < .001$). 경쟁모형인 부분매개 모형과의 비교에서도 의도적 통제가 친사회적 행동을 직접 예측하는 경로가 매우 약해서 유의하지 않고 의도적 통제가 공감을 예측하는 경로와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경로 값이 완전매개모형과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의도적 통제가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직접경로를 설정해서 모형이 개

선되는 정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채택모형의 경로에 대한 수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모형 내 개별경로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기반으로 의도적 통제가 공감을 거쳐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두 개별 경로를 동시에 고려한 간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457, p < .001$), 이 때 bootstrapping을 통해 추정한

표 6. 채택된 완전매개모형의 경로수치

구분	경로	B	SE	β
직접	의도적 통제→ 공감	.99	.17	.51
간접	공감→ 친사회적 행동	.68	.06	.89

표 7. 채택된 완전매개모형의 bootstrapping 결과(의도적 통제 → 공감 → 친사회적 행동)

Effect	Estimate	SE	95% CI	
			Percentile	Bias-corrected
직접 효과	-	-	-	-
간접 효과	.457***	.065	(.318, .576)	(.315, .574)
총효과	.457***	.065	(.318, .576)	(.315, .574)

주.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든 추정치는 표준화 값으로 기록하였음.

*** $p < .001$.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 내에 효과 없음을 의미하는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정적으로 일반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percentile CI: .318, .576; BC CI: .315, .57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아동의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에서 남녀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남녀차이에서 비 일관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남녀 차이가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김미라, 2009; 서소영, 2009; 이경주, 2002; 유연경, 유미숙, 2012; 조강모, 2011; Auyeung et al., 2009; Bryant, 1982; Eisenberg & Lennon, 1993)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즉 사회가 여아에게 더 공감적일 것을 기대함으로써 여아는 이를 내면화하게 되고 결국 남자보다 높은 공감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아동은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의 기대나 요구를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성유형화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무엇을 강조 받았는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서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박성희, 1994; 정문자, 양성은, 1995).

2. 아동의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공감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공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의도적 통제가 높은 아동이 타인에 대한 공감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Eisenberg et al., 2007; Valiente et al., 2004). 자기의 정서를 잘 관리하고 스스로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아동은 자기감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괴로움을 알아채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기 정서에 대한 이해와 조절이 먼저 선행되었을 때 타인에게 공감적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공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남지현, 2013). 즉 타인에 대한 강력한 정서반응을 느낀다 하더라도 자기정서를 먼저 억제하지 못한다면 개인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느라 정작 타인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공감반응을 표현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이 자기 괴로움에 빠져 불안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였다는 Eisenberg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공감을 위해서는 대상과 혼합된 강력한 정서반응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박성희, 2004; 신경일, 1994).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주요한 변인이라고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유연경, 2013; 조한익, 이미화, 2010; Barnett et al., 1982; Batson et al., 2002; Buckley et al., 1979). 이는 인지적 발달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아동 후기는 이미 조망수용능력 발달된 상태로 탈 중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 잘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은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배윤진, 임지영, 2012; Eisenberg et al., 2001; Spinrad et al., 2007)들과 일치한다. 본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 5, 6학년은 억제적 통제와 활성화적 통제가 더욱 발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의도적 통제는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나 원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 상황을 수용하고 특정행동을 해야 하는 맥락에서 억제적 통제와 활성화적 통제를 활성화시켜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즉 의도적 통제는 행동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지는 내적조절능력으로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Berger, Kofman, Livneh, & Henik, 2007; Posner & Rothbart, 2000). 이미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듯이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본 연구 결과에서도

다시 검증하였다.

3.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간의 경로모형 검증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은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1995)의 매개분석 절차에 따르면 독립변인→종속변인(총효과), 독립변인→매개변인(a), 매개변인→종속변인(b)의 관계가 모두 유의해야 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이 개입됨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상태로 변하면 완전매개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공감이 매개변인으로 개입되면서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변함을 알 수 있다. 즉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의도적 통제가 타인지향적인 공감을 하도록 도와 자발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한다. 즉 타인이 처한 고통스런 상황을 보고 정서가 각성되더라도 이 정서가 개인적인 고통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적절한 도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반면 의도적으로 내적 조절이 가능한 아동은 개인적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으로 주의를 전환시켜 타인지향적인 공감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적절한 도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동정심을 더 많이 나타냈고 사회적 기술 수준이

높았음을 보고한 Eisenberg와 동료들(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의도적 통제가 개인적 고통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Valiente et al., 2004). 더불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타인의 상황을 오해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남지현, 2013; Block & Block,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검증함으로써, 의도적 통제와 공감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할 수 있다는 간접 발달 경로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내적인 자기조절력이 잘 발달된 아동이 타인지향적인 공감을 잘하도록 강화하여 실제 타인을 도우려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이다. 또한 정서적인 각성이 반드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박성희(1997)의 제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요컨대 본 연구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 공감,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경로를 새롭게 확인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공감을 매개로 의도적 통제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경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설문 연구로만 진행되어 아동의 실제행동을 관찰하지 못했다는 점과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 특성에 대한 아동의 자기 보고가 편향될 수 있

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관찰, 면접을 통한 직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희 (2011).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라 (2009). 중학생의 학업성취압력 지각과 공감능력이 심리적 안녕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 이옥경 (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65-82.
- 김지현 (2010).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적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대한가정학회지, 48(2), 13-22.
- 김학령, 김정화, 정익중 (2011).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영향력검증 -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 모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6, 261-288.
- 남지현 (2013).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개방도가 아동의 공감 능력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나 (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경 (2010).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소영 (2009). 초등학생의 성별 및 학년별 공감 수준과 사회성숙도의 차이.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소정 (2006).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의 요구전략, 언어 발달, 어머니의 친사회성에 관련된 양육신념 및 사회화전략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287-310.
- 박성희 (1994). 공감·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서울: 문음사.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배윤진 (2012).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해결 능력 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윤진, 임지영 (2011).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관련 논문의 연구 동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57-70.
- 배윤진, 임지영 (201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 요인: 부모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3(3), 1-22.
- 배지은 (2008). 역할놀이 활동이 공감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일 (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연구보, 29(1), 1-37.
- 이경주 (2002). 청소년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희, 문혁준 (2008). 아동의 정서성, 정서조절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4), 1-14.
- 양진숙 (1991).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연경 (2013).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연경, 유미숙 (201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25(1) 17-32.
- 장혜인 (2010). 자기조절적 기질로서의 통제 노력: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9-35.
- 장희순 (2013).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 양성은 (1995). 공감과 사회적 평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16(2), 97-112.
- 조강모 (2011). 초등학교 아동의 친사회행동 발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초등도덕교육, 36, 205-229.
- 조한익, 이미화 (2010).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1), 140-159.
- 조효진, 손난희 (2006). 상담 일반: 공감 능력과 이타행동. 상담학연구, 7(1), 1-9.
- 차화정 (2011). 한국어판 Eq-c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예비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화정, 김혜리, 이수미, 엄진섭, 이승복 (2011). 자기 보고형 한국어판 아동용 공감지수 (Eq-c) 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63-81.
- 하은혜, 조유진 (2007). 또래동조성이 집단 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 내적 중재요인: 남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간발달학회, 14(4), 49-64.
- Auyeung, B., Wheelwright, S., Allison, C., Atkinson, M., Samarawickrema, N., & Baron-Cohen, S. (2009).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s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 39(11), 1509-1521.
- Barnett, M. A., Howard, J. A., Melton, E. M., & Dino, G. A. (1982). Effect of inducing sadness about self or other on helping behavior in high and low empath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4), 920-923.
- Batson, C. D., Ahmad, N., Lishner, D. A., & Tsang, J. A. (2002). *Empathy and altruism*.

-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er, A., Kofman, O., Livneh, U., & Henik, A. (2007).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atten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rogress in Neurobiology*, 82, 256-286.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Buckley, N., Siegel, L. S., & Ness, S. (1979). Egocentrism,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in young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29-330.
- Capaldi, D. M., & Rothbart, M. K.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measur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 153-173.
- Caspi, A., & Moffitt, T. E. (1993). When individual differences matter? A paradoxical theory of personality coherence. *Psychological Inquire*, 4, 247-271.
-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6, 485-498.
- Cumberland-Li, A., Eisenberg, N., & Reiser, M. (2004). Relations of young children's agreeableness and resiliency to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Social Development*, 13(2), 193-212.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1.
- Deutsch, F., & Madle, R. A. (1975). Empathy: Historic and curr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a cognitive theoretical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18, 267-287.
- Downs, E., & Jenkins, S.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response and scores on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7, 680-682.
- Eisenberg, N. (1983). Pr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9(6).
- Eisenberg, N., & Fabes, R. (1990). Empathy: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14, 131-149.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C., Holgren, R., . . . Losoya, S. (1997).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Child Development*, 68(2), 295-311.
- Eisenberg, N., & Lennon, R. (199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 100-131.
- Eisenberg, N., Michalik, N., Spinrad, T. L., Hofer, C., Kupfer, A., Valiente, C., . . . Reiser, M. (2007). The relations of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to children's sympathy: A longitudinal study. *Cognitive Development*, 22, 544-567.
- Eisenberg, N., & Miller, P.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 91-119.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Pidada, S., & Liew, J.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Indonesia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2), 1747-1763.
- Eisenberg, N., & Spinrad, T. L.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Sharpening the definition. *Child Development*, 75(2), 334-339.
- Ellis, L. K., & Rothbart, M. K. (2001). *Revision of the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f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innesota.
- Feshbach, S. (1964). The function of aggression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ve drive. *Psychological Review*, 71, 257-272.
- Feshbach, N. D., & Feshbach, S. (1982). Empathy training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on: Potentialities and limitations.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4(3), 399-413.
- Goodman, S., Brogan, D., Lynch, M., & Fielding, B. (1993). Social and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 516-523.
- Greener, S. H.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predisposition, emotional decoding and regulation skill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The Science and Engineering*, 59(8-B), 4509.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4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Iannotti, R. J. (1978). Effect of role-taking experiences on role taking, empathy, altruism, and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19-124.
- Lennon, R., Eisenberg, N., & Carroll, J. (1983).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s in the preschool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troit, MI.
- Moore, B. S., & Eisenberg, N. (1984). The development of altruism. *Annals of Child Development*, 1, 107-194.
- Posner, M. L., & Rothbart, M. K. (2000). Developing mechanisms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427-441.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an, R.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New-York: Wiley.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Thompson, R. A.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6*.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New Jersey, pp. 115-182.
- Simonds, J., Kieras, J. E., Rueda, M. R., & Rothbart, M. K. (2007). EC, executive atten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in 7-10-year-old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 474-488.
- Spinrad, T. L., Eisenberg, N., Gaertner, B., Popp, T., Smith, C. L., Kupfer, A., . . . Claire, H. (2007). Relations of maternal socialization and toddlers' effortful control to children's adjustment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5), 1170-1186.
- Underwood, B., & Moore, B. S.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Valiente, C.,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 Losoya, S. H. (2004). Prediction of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from their effortful control and parents' express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911-926.
- White, G. M. (1972). Immediate and deferred effects of model observation and guided and unguided rehearsal on donating and stea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2), 139-148.
- Zarabatany, L., Hartmann, K., Gelfand, D., & Vinciguerra, P. (1985). Gender differences in altruistic repu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7-101.

1 차원고접수 : 2014.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4. 11. 16.
최종게재결정 : 2014. 12. 04.

The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and Empathy of Children on Their Prosocial Behavior

Cho, Eunju

Dept. of Child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Jeong, Yoonkyung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ild's effortful control,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lf-report data were collected from 342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was found in the effortful control of the children.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on the other hand,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Second, the effortful control,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of the children were found to exhibit a high degree of relevance with one another. Higher levels of effortful control and empathy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 of prosocial behavior. Finall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ffortful control 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was mediated by empathy. This result implied that empathy is a variable that can be influenced by effortful control, thereby proposing a possibility of an indirect developmental path for prosocial behavior through effortful control and empathy.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other-oriented empathy in increasing prosocial behavior.

Keywords: effortful control, empathy, prosocial behavior, mediating effect